

서울말 어간말 자음의 음성 실현*

강은지(서울대), 이호영(서울대), 김주원(서울대)

<차 례>

- | | |
|--------------|---------------------|
| 1. 머리말 | 3.6. '교'의 발음 |
| 2. 연구 방법 | 3.7. '중'의 발음 |
| 2.1. 설문지 작성 | 3.8. 기타 홑받침들의 발음 |
| 2.2. 제보자 선정 | 3.9. 'ㄱ'의 발음 |
| 3. 연구 결과 | 3.10. '리'의 발음 |
| 3.1. 'ㄴ'의 발음 | 3.11. '래'의 발음 |
| 3.2. 'ㄷ'의 발음 | 3.12. '래'의 발음 |
| 3.3. 'ㅌ'의 발음 | 3.13. '냐, ㄹ, ㅍ'의 발음 |
| 3.4. 'ㅋ'의 발음 | 4. 맺음말 |
| 3.5. 'ㅌ'의 발음 | |

<Abstract>

The Phonetic Realization of Syllable Codas in Korean

Eunji Kang, Ho-Young Lee, Juwon Kim

Although Standard Korean is based on Seoul Korean, the phonetic realization of syllable codas in Seoul Korean has not been satisfactorily investigated. This paper aims to study how Seoul speakers pronounce syllable codas in certain phonetic contexts and what pronunciation they prefer among variants. It is noted that the realization of a syllable coda is different word by word and generation by generation. It is also noted that the syllable coda of a word is realiz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following vowel. And we discussed how the Principles of Standard Korean Pronunciation should be revised in the futur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 Keywords: Pronunciation preference, Syllable coda, Principles of Standard

Pronunciation

* 이 연구는 2003년도 두뇌한국 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과제번호: 100-2003-0018).

1. 머리말

표준어는 교육, 행정, 방송, 출판 등의 공식 언어로서 우리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어의 기반이 되는 서울말의 발음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는 체계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다. 1980년대에 국가적인 과제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방언 조사를 실시할 때 서울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1][2][3][4][5][6][7][8][9], 1988년에 표준발음법이 제정될 때도 서울말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발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7년 이후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본격적으로 서울말의 발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나[10][11][12][13] 아직은 연구 성과가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부진했던 서울말의 발음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서울말에서 어간말 자음이 음성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며 서울 토박이들이 어떤 발음을 선호하는지 156여명의 서울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밝혀냄으로써 앞으로 있을 표준발음법 규정의 개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서울 이외의 지역 방언들에서 어간말 자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1][2][3][4][5][6][7][8][9], 이기갑[14], 정용수[15], 이호영·김희영[16] 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서울말에서의 어간말 자음의 음성적 실현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는 국립국어연구원[10]과 김선철[13] 정도밖에 없다. 그러나 국립국어연구원[10]과 김선철[13]은 어간말 자음의 음성 실현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한 조사 항목이 몇 개밖에 없어서 매우 제한적인 정보밖에 제공해 주질 못하고 있으며, 국립국어연구원[10]의 경우 노년층 서울 토박이의 말만을 수집해서 분석했기 때문에 청년층과 장년층의 발음이 어떤지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안배된 다수의 서울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말에서 어간말 자음이 음성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며, 어떤 발음이 선호되는지 체계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설문지 작성

서울말에서 어간말 자음이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제보자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들의 말을 녹음하고, 녹음된 자료를 분석하는 면접 조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제보자들을 상대로 녹음 조사를 하는 방법은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을 필요로 한다. 서울말의 발음이 연령별로, 성별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만족스럽게 파악하려면 적어도 120명¹⁾ 이상의 제

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필자들의 능력으로는 120명 이상의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방언조사에서 많이 활용되는 설문지를 이용한 통신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통신 조사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고, 결과 분석도 녹음 조사보다 훨씬 더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설문지 조사는 제보자들의 발음을 직접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다소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발음을 조사할 때는 어휘를 조사할 때보다 제보자가 자신의 발음을 부정확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문지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자들은 설문지에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영했다.²⁾ 첫째, 제보자들에게 자신의 발음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자신이 선호하는 발음을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설문지의 표지에 명시했으며 선호하는 발음이 자신의 발음이면 더 좋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했다. Wells[17]는 1,000여 개의 어휘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발음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제보자들에게 자신의 발음을 선택해서 표기하라고 할 경우 자신의 발음을 숨기는 일이³⁾ 종종 생기는 반면 자신이 선호하는 발음을 고르라고 하면 자신의 발음을 더 잘 노출시킨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준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발음을 숨기고 표준발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Wells[17]의 방법론을 받아 들여 발음 선호도 조사를하기로 결정했다. 발음 선호도 조사는 표준 발음을 정할 때 일종의 여론 조사와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필자들의 연구 목적에 적당한 조사 방법으로 여겨진다.

둘째로, 각 조사 항목들이 발음될 수 발음들을 두 개 내지 네 개를 보기로 들어 이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예: 가마술에 ㉠가마소테, ㉡가마소체, ㉢가마소세, ㉣가마소데). 보기를 두 개 이상 보여 주면 제보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발음을 고르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제보자들이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좋은’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1번과 56번 항목에 두 번 노출시켜 1번과 56번 항목의 답을 다르게 표기한 제보자의 설문지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사 결과의 분석에

1) 120명이란 숫자는 자의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제보자의 수는 많을수록 조사의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성별, 연령별 발음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20~30대 40명, 40~50대 40명, 60대 이상 40명 정도는 제보자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고 해서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녹음 조사의 경우에도 제보자가 자신의 평소 발음을 제대로 노출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는 발음 조사의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

3) 영국에서는 RP (Received Pronunciation)라 불리는 표준적인 발음의 권위 때문에 제보자가 자신의 발음이 비 표준적이라고 판단하면 자신의 발음을 노출하길 꺼릴 가능성이 있다.

반영하지 않았다.⁴⁾

조사 항목을 결정하기 위해 국립국어연구원[18]을 토대로 하여 빈도수 상위 5,000개 단어들 중에서 어말 내지 어간 말에 홀받침과 겹받침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우선적으로 추려내고, 이 단어들 중에서 화자에 따라 서로 다른 발음으로 실현될 만한 단어들을 다시 추려냈다. 다음 단계에서는 유재원[19]을 이용하여 사용 빈도수는 적지만 어간말 자음의 음성적 실현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단어들을 더 추가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정된 단어는 홀받침을 가지고 있는 단어 37개와 겹받침을 가지고 있는 단어 18개였다.

홀받침으로 끝나는 단어가 인용형으로 발음될 때는 모든 화자들이 동일하게 발음하므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붙여 조사 항목을 만들었고,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 어간말 자음의 발음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조사 단어 다음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조사를 붙였다. 그리고 홀받침으로 끝나는 단어들 중 ‘씩이, 겁이, 신고, 씻어라, 떡하고’와 같이 화자에 따라 음성 실현이 다른 단어들을 추가했다. 겹받침으로 끝나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인용형에서도 화자들 간의 발음 차이가 관찰되므로 다섯 개의 단어는 인용형의 발음도 조사했으며, 대부분의 단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붙여 조사 항목을 만들었다. 또한 겹받침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경우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여 자음 앞에서 겹받침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조사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 조사 항목은 모두 92개인데, 신뢰도 검사를 위해 ‘좋은’을 한 번 더 추가해서 모두 93개의 조사 항목을 만들었다.

4) 그러나 이 같은 장치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 신뢰 불가로 판정 받은 설문지들에서도 분석에 활용된 설문지들과 매우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표 3> 흘받침을 갖고 있는 조사 항목

ㅅ	ㅈ	ㅊ	ㅋ	ㅌ	표	ㅎ	기타
뜻있는 맛있는 멋있는	낮에 밤낮으로	덧을 덧이	동녘에 부엌에서 부엌으로	가마솥에 가마솥을	길 옆에서 길 옆으로	낳은 좋은	씩이
	빛에 빛은	몇몇을 몇몇이		겉에서 겉을	갯잎에서 갯잎으로		겹이
각뚱이 깨끗이 끗끗이 끗끗이	젓에 젓은	숫을 숫이	밭에서 밭을	밑에서 밑을	무릎이 숲에서 숲으로	떡하고	싹고
	목젓에 목젓은	장미꽃을 장미꽃이		곶에서 곶을	곶잎에서 곶잎으로		곶이
		햇빛을 햇빛이			옆으로 있을		곶어라
					형겹에 형겹을		

<표 4> 겹받침을 갖고 있는 조사 항목들

	ㅈ	ㅊ	ㅋ	ㅌ	표	ㅈ	ㅊ	ㅅ
인용형			닭 흙 산기슭	삶	여덟			
모음 앞	넋이 뭉이		통닭이 흙이 산기슭이	삶이	여덟이			싼 값에
모음 앞	넋을 뭉을		통닭을 흙을 산기슭을					싼 값을
자음 앞		꿂다	늑다 맑다 맑지 볶지	닭다 삶다	밝다 밝고 여덟 살	핥다	웁다	

2.2. 제보자 선정

이 조사 연구는 서울 토박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20~40대 제보자들에게는 필자들이 직접 설문지를 주고 즉석에서 설문지를 회수했으며, 50대 이상의 제보자들의 경우에는 서울토박이회의 도움을 받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우편으로 설문지를 회수했다. 필자들이 직간접 적으로 배포한 설문지는 350부였고, 이 중 156부가 회수되었다. 설문에 응한 156명의 제보자들 중 99명은 선대 거주지도 서울이었고, 20명은 부모 모두, 혹은 한 쪽의 거주지가 서울·경기 지역이었으며, 나머지 37명은 부모의 거주지가 서울, 경기 이외의 다른 지역이었다. 설문에 응한 제보자들에게는 10,000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

설문에 응한 제보자들을 연령별로 나누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괄호 안에는 1번 항목과 56번 항목을 동일하게 답하지 않아 신뢰 불가 판정을 받은 제보자의 수를 적어 넣었다. 연령별로 제보자의 수를 성별로 안배하길 원했지만 40~50대 남자 제보자와 60~70대 여자 제보자의 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

<표 3> 제보자들의 연령별 분포

	남	여	총제보자
20-30대	30(5)	34(2)	71(7)
40-50대	14(3)	22(3)	42(6)
60-70대	27(8)	5(3)	43(11)
합계	87(16)	69(8)	156(24)

이 연구에서는 어간말 자음별로 조사 항목들에 대한 제보자들의 선호도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연령별로 살펴보았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남녀간의 성별 선호도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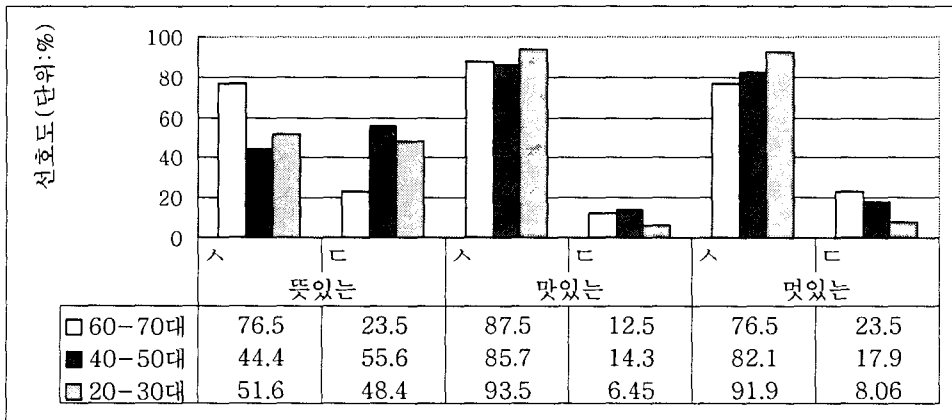
3. 연구 결과

3.1. ‘ㅅ’의 발음

‘웃, 넷, 빗-’과 같이 ‘ㅅ’으로 끝나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

는 조사나 어미가 오면 예외 없이 ‘ㅅ’이 그대로 발음된다(예: 옷이[오시], 넷이다 [네시다], 빗어[비서]). 그러나 ‘깨끗이, 꽃꽂이, 꽃꽂이’와 같은 부사에서는 접미사 ‘이’ 앞의 ‘ㅅ’이 화자에 따라 [ㄷ]으로 발음되는 일이 있다. 또한 ‘맛, 멋, 뜻’과 ‘있다’가 결합된 복합어 ‘맛있다, 멋있다, 뜻있다’의 경우 ‘ㅅ’이 자립 형태소 ‘있다’ 앞에서 [ㄷ]으로 중화된 후 다음 음절로 연음 되는 것이 원칙인데[20], 많은 화자들이 ‘ㅅ’을 중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연음 시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 ‘맛있는, 멋있는 뜻있는’과 ‘깨끗이, 꽃꽂이, 꽃꽂이, 깎듯이’를 조사 항목으로 선정해서 발음 선호도를 조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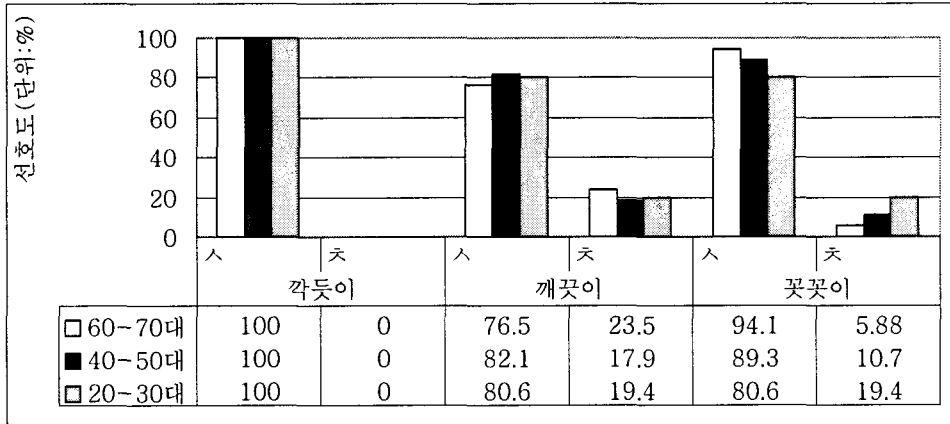
현행 표준발음법에서는 ‘맛있는, 멋있는’의 경우 [마신는], [머신는]과 [마딘는], [머딘는]을 모두 표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뜻있는’의 경우에는 [뜨딘는]만을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맛있는’과 ‘멋있는’의 경우 압도적으로 [마신는]과 [머신는]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30대 화자들의 경우 40대 이상의 화자들보다 [마신는]과 [머신는]을 선호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다. ‘뜻있는’의 경우 [뜨신는]과 [뜨딘는]이 거의 비슷한 선호도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20~30대 화자들의 경우 40대 이상의 화자들보다 [뜨신는]을 더 많이 선호했다. 40~50대 화자들과 60대 이상의 화자들 사이에는 다소 발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맛있는’과 ‘멋있는’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화석화되어 단일어처럼 인식되어 왔으며, ‘뜻있는’의 경우에는 단일어로의 화석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림 1> ‘뜻있는, 맛있는, 멋있는’

접미사 ‘이’가 붙은 부사들 중에서 ‘깨끗이, 꽃꽂이, 꽃꽂이’의 경우 80% 이상의 제보자들이 [깨끄시], [꼬꼬시], [꾸꾸시]를 선호했으며, 20% 미만의 제보자들이 [깨

끄치], [꼬꼬치], [꾸꾸치]를 선호했다. 이와 같은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반면 '각뚩이'의 경우에는 모든 제보자들이 [각뜨시]를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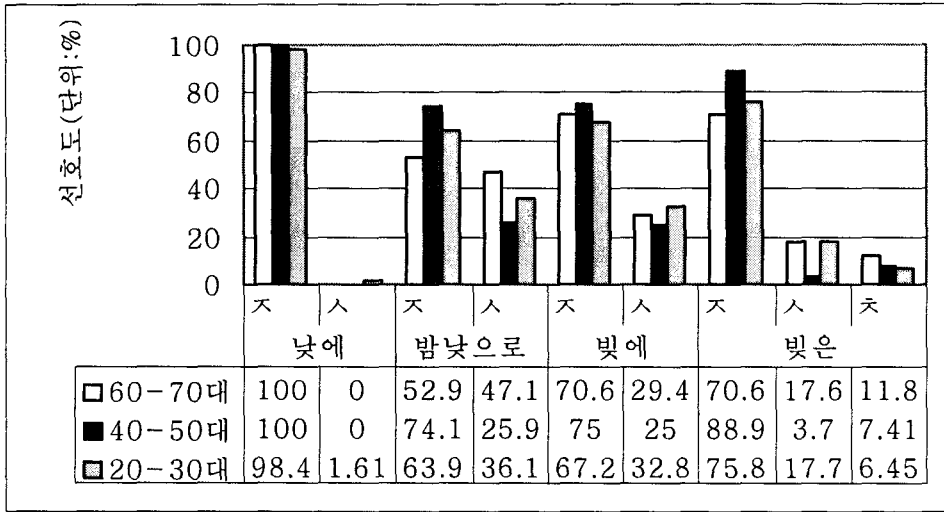
<그림 2> '각뚩이, 깨끗이, 꽃꽂이'

'뜻있는'과 '각뚩이'의 예에서 보듯이 같은 음운환경을 갖고 있는 단어들도 화자에 따라 음성 실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ㅈ'의 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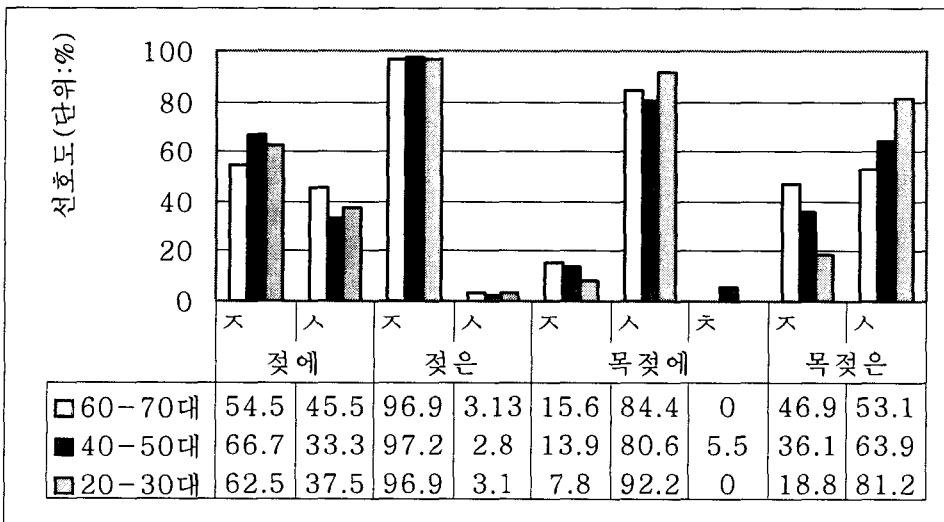
용언 어간말의 'ㅈ'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 나올 때 예외 없이 [지]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ㅈ'으로 끝나는 체언의 경우 단어에 따라, 이어 나오는 모음에 따라 [ㅅ]으로도 발음되고 [ㅈ]으로도 발음된다. 이 연구에서 '낮에'의 경우 거의 모든 제보자들이 [나제]를 선호했고 1명의 제보자만이 [나세]를 선호했다. 그러나 '밤낮으로'의 경우에는 [밤나스로]를 선호한 제보자가 꽤 있었다. 특히 60~70대 제보자들의 47%, 20~30대 제보자들의 36%가 [밤나스로]를 선호한 점이 눈에 띈다. [밤나츠로]를 설문지에 보기로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밤나츠로]를 선호한다고 써 넣은 20대 제보자가 한 명 있었는데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이 제보자는 [밤나츠로]로 발음하고, 이 발음을 선호하고 있었다.

'빛은'의 경우 [비즌]을 선호하는 제보자들이 가장 많았고 소수의 제보자들이 [비슨]과 [비즌]을 선호했다. '빛에'의 경우 '밤낮으로'와 마찬가지로 [비체]를 보기에 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비체]를 적어 넣은 제보자가 있었다.



<그림 3> '낮에, 밤낮으로, 빛에, 빛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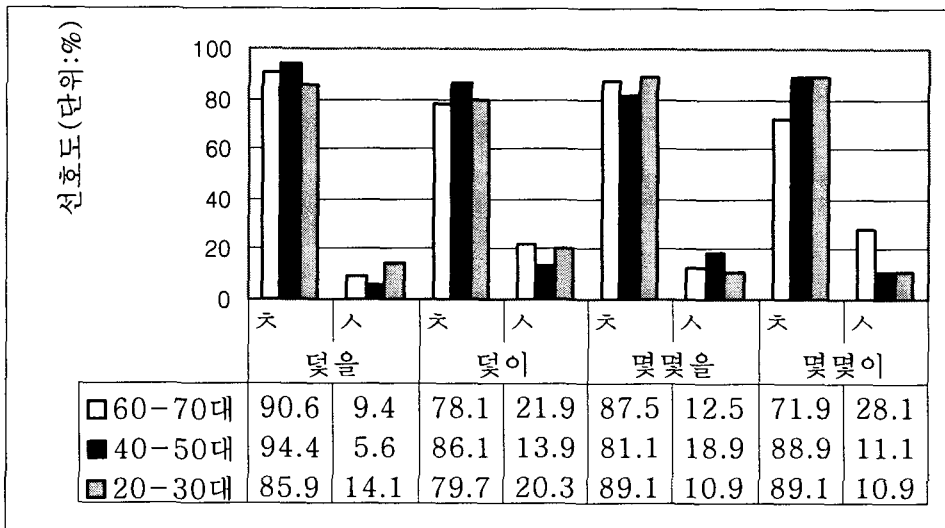
'젓에'의 경우 60% 가량의 제보자들이 [저제]를 선호하고 나머지가 [저세]를 선호한 반면 '젓은'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거의 모든 제보자들이 [저즌]을 선호했다. '목젓에'의 경우 87% 이상의 제보자들이 [목쩌세]를 선호했으며 '목젓은'의 경우 69%에 달하는 제보자들이 [목쩌즌]을 선호했다. '목젓에, 목젓은'의 경우 젊은 세대에서 [목쩌세]와 [목쩌즌]의 선호도가 뚜렷하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4> '젓에, 젓은, 목젓에, 목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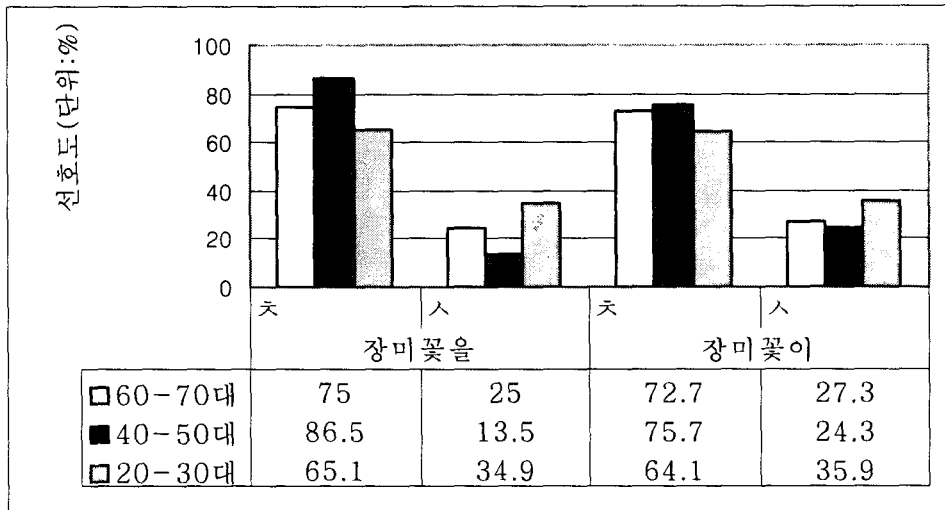
3.3. 'ㅈ'의 발음

'ㅈ'으로 끝나는 체언 '덧', '덧덧', '숫', '꽃', '빛' 등을 대상으로 제보자들의 발음을 조사한 결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이어 나올 때 약 80% 정도의 제보자들이 [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 정도의 제보자들이 [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ㅈ'도 뒤에 어떤 모음이 오느냐에 따라 같은 화자도 다르게 발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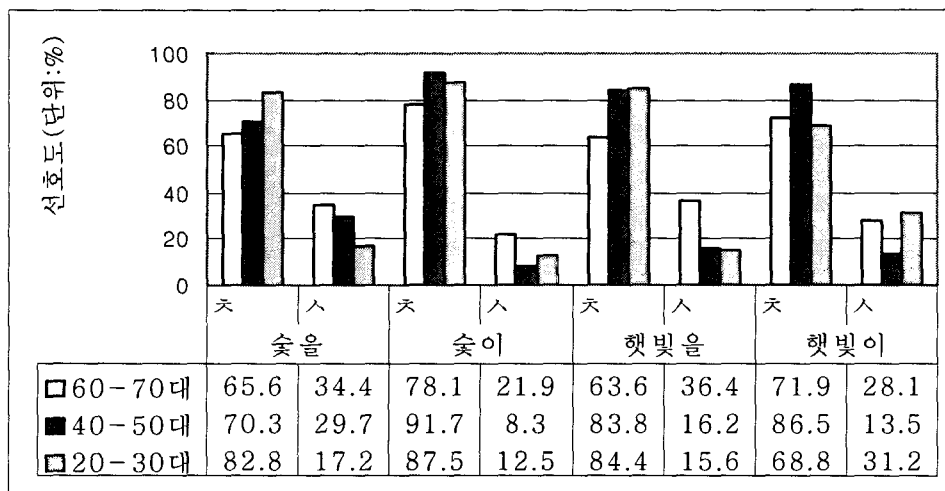
<그림 5> '덧을, 덧이, 덧덧을, 덧덧이'

위의 그래프에서 보듯이 '덧'의 경우는 조사 '을' 앞에서보다 '이' 앞에서 [ㅅ] 발음이 더 선호되었다. 그리고 '덧덧'의 경우 60~70대 제보자들은 조사 '이'가 올 경우 [ㅅ] 발음을 선호하는 비율이 제법 높은 것이 눈에 띈다.



<그림 6> '장미꽃을, 장미꽃이'

'장미꽃'의 경우 20~30대 제보자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 40대 이상 제보자들에 비해 [ㅅ] 발음을 선호하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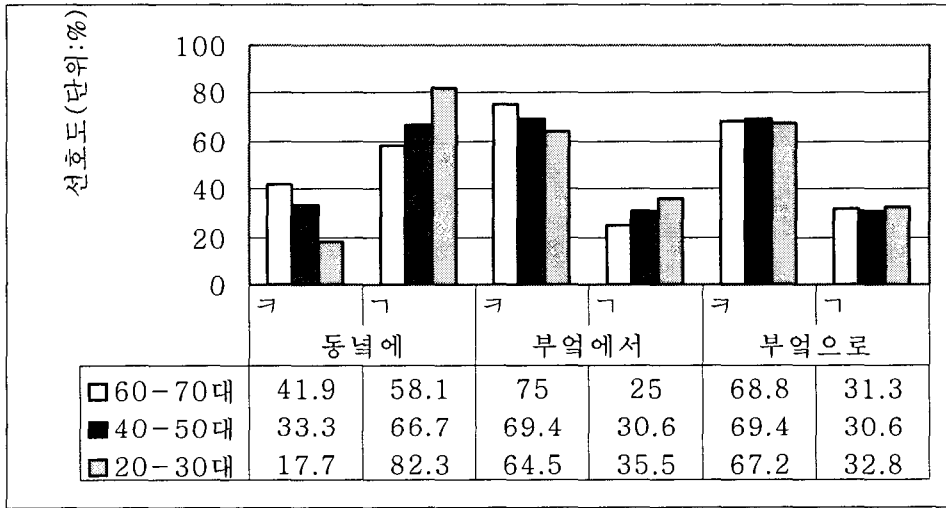


<그림 7> '숫을, 숫이, 햇빛을, 햇빛이'

'숫'과 '햇빛'의 경우에도 다른 조사 항목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ㄷ] 발음이 압도적으로 선호되었고, 뒤 이어 나오는 모음에 따라 선호도가 다소 달랐다.

3.4. 'ㄱ'의 발음

국어에서 'ㄱ'으로 끝나는 단어는 '부엌'과 '넋' 두 개밖에 없다. '동넋에'의 경우 [동녀계]를 선호하는 제보자의 비율이 70%를 넘은 반면, '부엌'의 경우에는 필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65%이상의 제보자들이 [부어케서]와 [부어크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넋'과 '부엌' 모두 젊은 세대로 갈수록 [ㄱ] 발음이 점점 더 큰 세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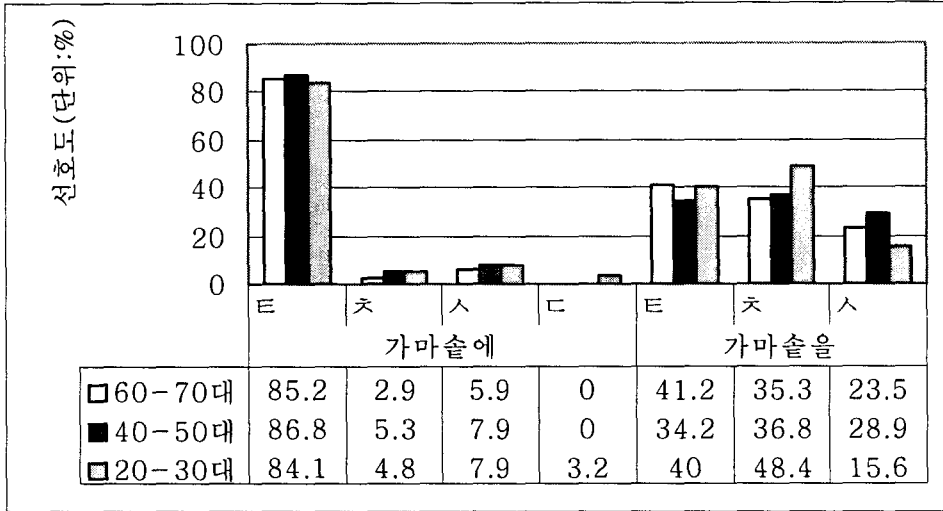


<그림 8> '동넋에, 부엌에서, 부엌으로'

3.5. 'ㅌ'의 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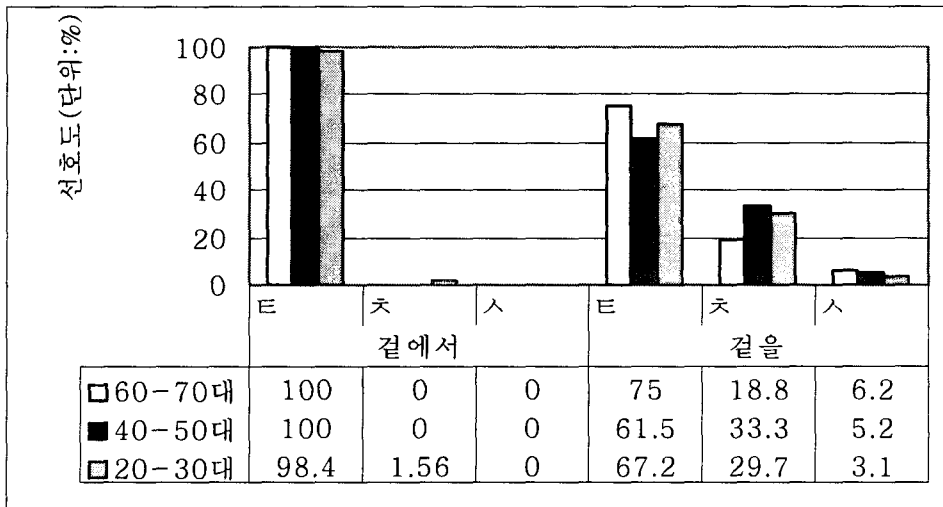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ㅌ'으로 끝나는 체언들 중에서 '가마솥, 곶, 밀, 밭'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해서 조사했다. 이 단어들 뒤에 조사 '에'나 '에서'가 이어 나올 경우 거의 모든 제보자들이 [ㅌ]을 선호했으나 조사 '을'이 이어 나올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제보자들이 [ㄷ]을 선호했으며 [ㅌ]을 선호하는 제보자들도 제법 있었다. 또한 단어에 따라 제보자들의 발음 선호도가 차이났다.

'곶, 밀, 밭'의 경우 조사 '에'가 올 경우 1명을 제외한 모든 제보자들이 [ㅌ] 발음을 선호했으나 '가마솥'의 경우는 85% 정도의 제보자들이 [ㅌ]을 선호했다. 또한 '가마솥을'의 경우 [ㅌ] 발음을 선호하는 제보자와 [ㄷ] 발음을 선호하는 제보자의 수가 거의 비슷했으며 [ㅌ] 발음을 선호하는 제보자들도 20% 이상 있었다.



<그림 9> '가마솥에, 가마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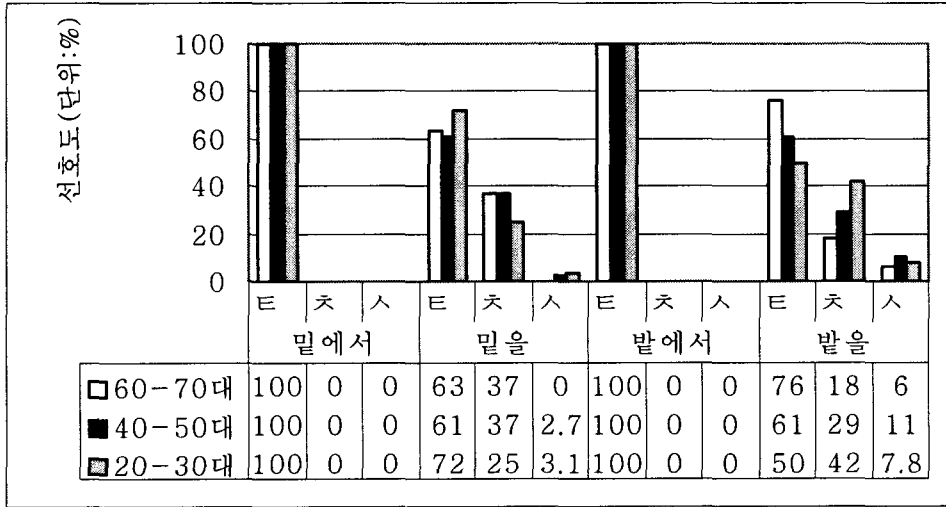
'가마솥'과는 달리 '걸, 밭, 밭'의 경우 [ㄷ] 발음을 선호하는 제보자들이 [ㅌ] 발음을 선호하는 제보자들보다 훨씬 더 많았으며 [ㅍ] 발음을 선호하는 제보자의 수는 매우 적었다.



<그림 10> '걸에서, 걸을'

설문지에서 '밭을' 항목의 보기로 [미들]을 넣지 않았으나 [미들]을 선호한다고

적어 넣은 제보자가 세 명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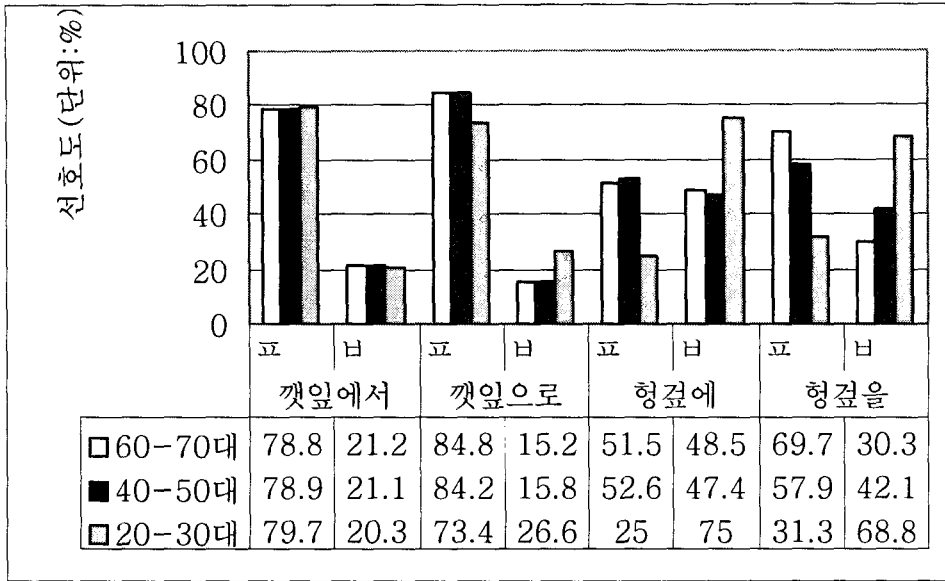


<그림 11> '밑에서, 밑을, 밭에서, 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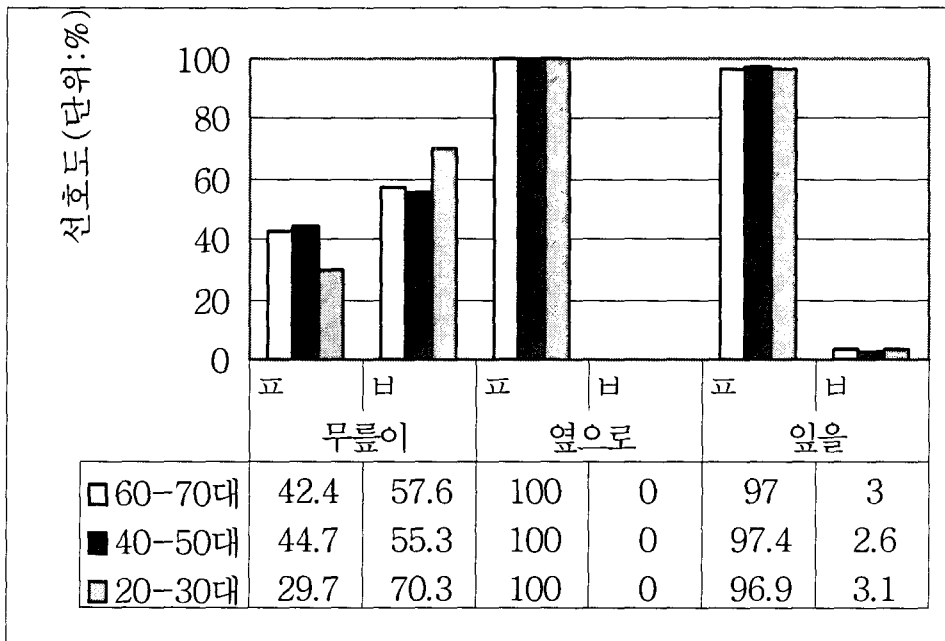
3.6. 'ㅍ'의 발음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단어의 끝에 위치하는 'ㅍ' 다음에 모음이 올 때 [ㅍ]으로 발음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무릎이', '형겉에', '형겉을'의 경우에는 [무르비], [형거베], [형거블]과 같이 'ㅍ'을 [ㅂ]으로 발음하는 것을 선호하는 제보자들이 60%에 달했다. [꽤니베서]와 [꽤니브로]는 약 25%가 넘는 제보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풀쑤베서]도 10%가 넘는 제보자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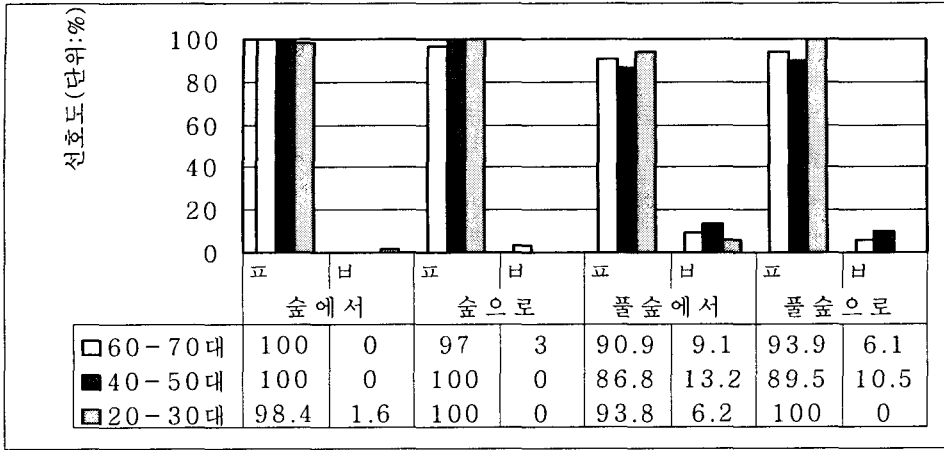
이와 같이 'ㅍ'을 [ㅂ]으로 발음하는 것을 선호하는 제보자는 60~70대에서보다 20~30대에서 더 많았다. 20~30대에서는 [무르비], [형거베], [형거블]에 대한 선호도가 70%가 넘었다. 20~30대 여성의 경우 약 80%의 제보자들이 [무르베], [형거블]을 더 선호했는데, [형거베]의 경우에는 90%에 가까운 제보자들이 선호했다. 이는 여성들이 음성 변화를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월이 지남에 따라 'ㅍ'의 발음이 [ㅂ]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2> '갯'에서, '갯'으로, '형'에, '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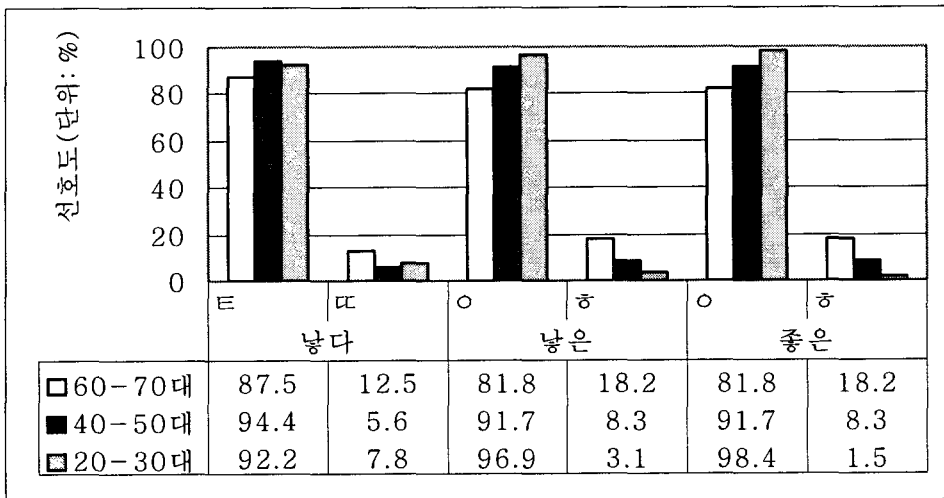
<그림 13> '무릎'이, '옆'으로, '있'을'



<그림 14> '숲에서, 숲으로, 풀숲에서, 풀숲으로'

3.7. 'ㅎ'의 발음

'ㅎ'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들 중에서 '낱다'와 '좋다'를 선택해서 '낱다, 낱은, 좋은'을 조사 항목으로 만들고 'ㅎ'이 모음과 자음 앞에서 각각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제보자들이 [나타], [나은], [조은]을 선호했다. 그러나 60~70대 제보자들의 경우에는 20~50대 제보자들보다 [나따], [나흔], [조흔]을 선호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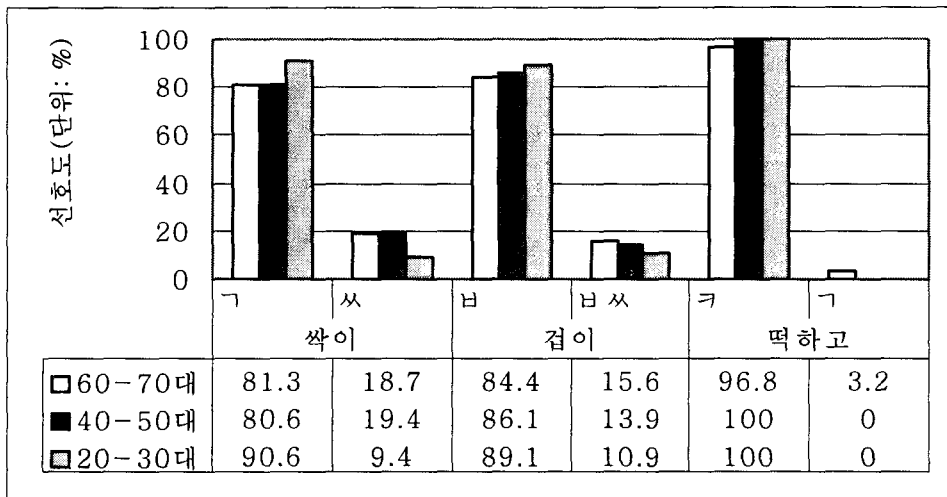


<그림 15> '낱다, 낱은, 좋은'

3.8. 기타 홀받침들의 발음

홀받침으로 끝나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들 중에서 모음이 이어 나올 때 화자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씩, 겁, 신다, 씻다’를 추가적으로 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또한 경음화 규칙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떡하고’도 조사 항목으로 추가했다.

우선 ‘씩이’의 경우 20~30대 제보자들의 경우 10% 정도만 [씩씨]를 선호한 반면 40대 이상 제보자들은 20% 가까이 [씩씨]를 선호했다. 남광우[21]에 나오는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전 시기에는 ‘씩’과 ‘씩’이 공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씩’의 어형이 현대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겁이’의 경우 20~30대 제보자들의 11% 정도가 [겁씨]를 선호한 반면 40대 이상 제보자들은 14~16%가 [겁씨]를 선호했다. [씩씨]와 [겁씨]를 선호하는 서울 토박이들의 수는 점차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떡하고’의 경우 거의 모든 제보자들이 [떡카고]를 선호했는데,⁵⁾ 이는 전라 방언과는 달리 서울말에서는 장애 음과 /ㅎ/이 이어 나올 때 필수적으로 경음화 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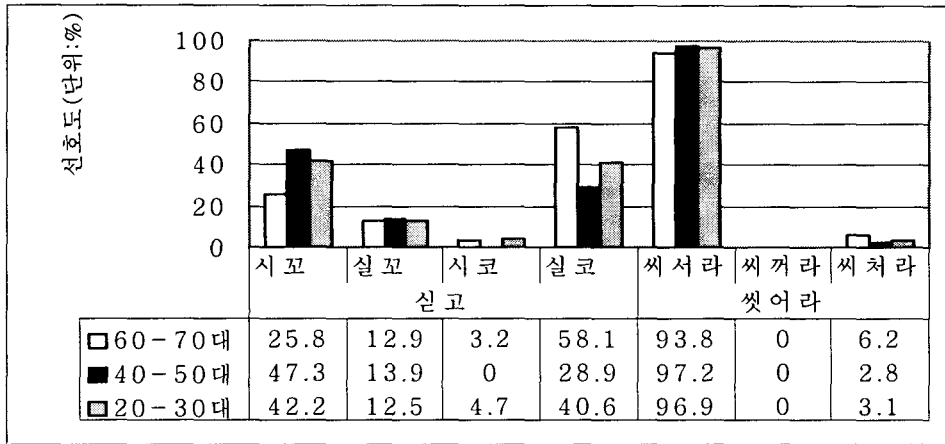


<그림 16> ‘씩이, 겁이, 떡하고’

다음으로 ‘실고’의 경우 [실꼬]와 [실코]가 거의 비슷한 선호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0%의 제보자들은 [실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씻어

5) [떡 하고]라고 끊어 읽는다고 응답한 제보자가 있었다. 설문문의 전체 응답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개인적인 발화 습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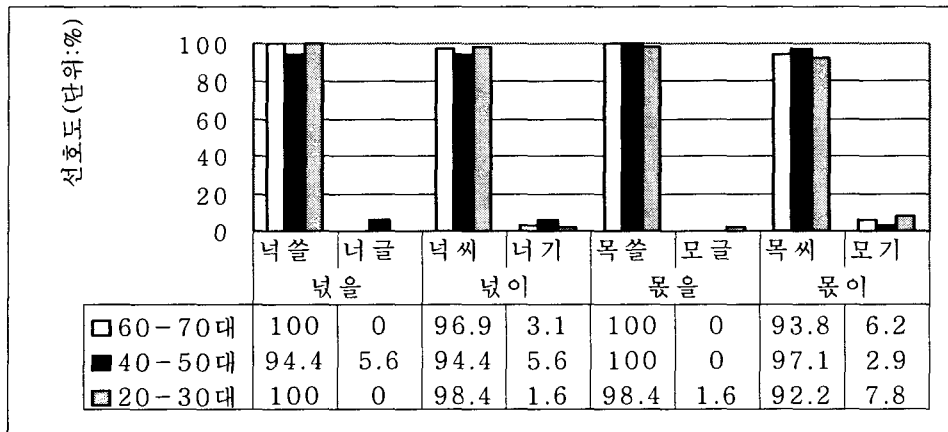
라'의 경우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씨서라]를 선호한 반면 [씨처라]를 선호하는 제보자들도 약 7% 정도 존재했다.



<그림 17> '신고, 씻어라'

3.9. 'ㄱ'의 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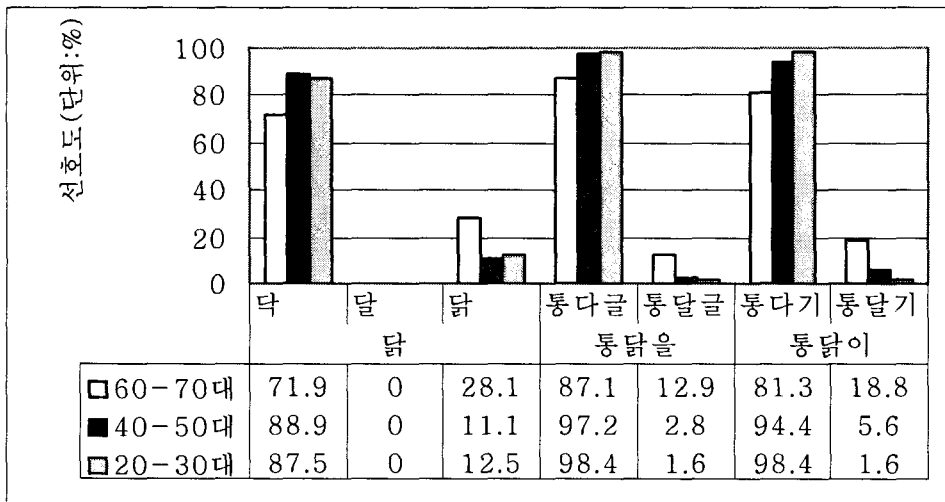
결반침 'ㄱ'의 발음을 조사하기 위해 '넛, 뭇'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했다. '넛, 뭇'에 조사 '이'가 이어 나오든 조사 '을'이 이어 나오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이어 나올 때 거의 모든 제보자들이 [기]과 [시]이 모두 실현된 발음을 선호했으며, 극소수의 제보자들만이 [기]만 실현된 발음을 선호했다.



<그림 18> '넛을, 넛이, 뭇을, 뭇이'

3.10. 'ㄹ'의 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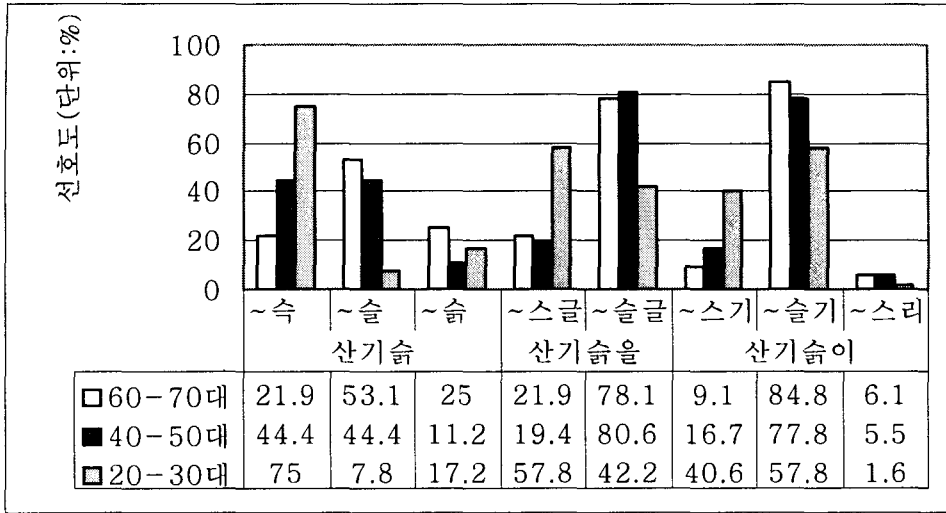
겹받침 'ㄹ'을 갖고 있는 체언들 중에서는 '닭, 통닭, 산기슭, 흙'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해서 발음 선호도를 조사했다. '닭'이 인용형으로 발음될 때는 88% 정도의 20~50대 제보자들이 [닭]을 선호했으며 72% 정도의 60~70대 제보자들이 [닭]을 선호했다.⁶⁾ '통닭이, 통닭을'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제보자들이 [통다기]와 [통다글]을 선호했다. 60~70대 제보자들의 경우 [통달기]와 [통달글]을 선호하는 비율이 20~50대 제보자들에 비해 훨씬 높았다.



<그림 19> '닭, 통닭을, 통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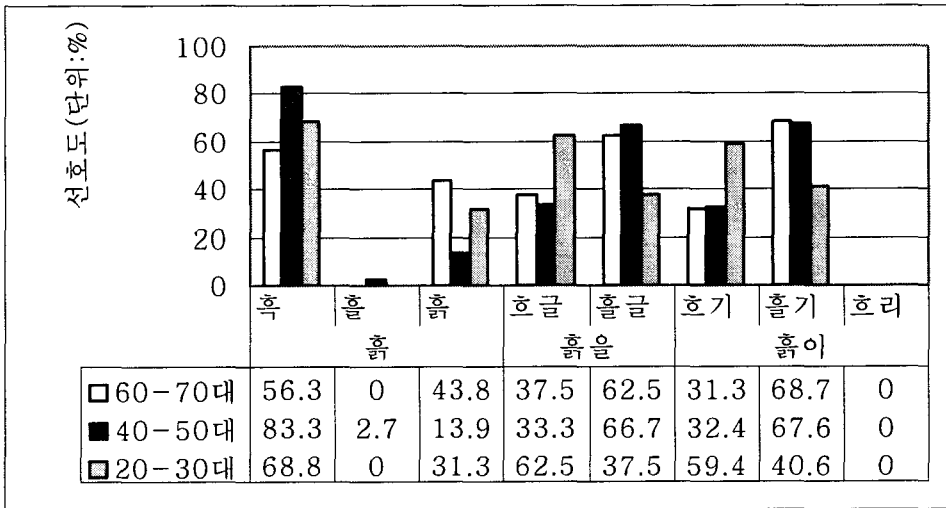
'산기슭, 산기슭을, 산기슭이'의 경우 연령별로 발음의 차이가 컸는데, 40~70대의 제보자들은 [산끼슬, 산끼슬글, 산끼슬기]를 가장 많이 선호한 반면 20~30대 제보자들은 [산끼스, 산끼스글, 산끼슬기]를 가장 선호했다.

6) [닭]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제보자들 중에 실제로 [닭]으로 발음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 없다. 겹받침으로 끝나는 단어가 인용형으로 발음될 때나 겹받침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 나올 때 홑받침으로 발음하면서도 겹받침으로 실현되는 발음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제보자들이 제법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발음 선호도는 실제 발음과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조사할 가치가 있다.



<그림 20> '산기슭, 산기슭을, 산기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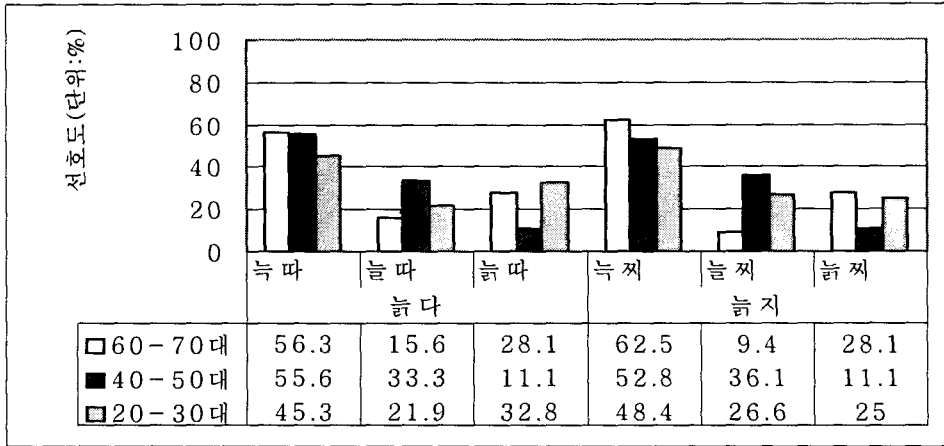
'흙, 흙을, 흙이'의 경우 '답, 통답'과는 달리 [혹, 흐글, 호기]를 선호하는 제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20~30대 제보자들은 40~70대 제보자들에 비해 [혹, 흐글, 호기]를 더 많이 선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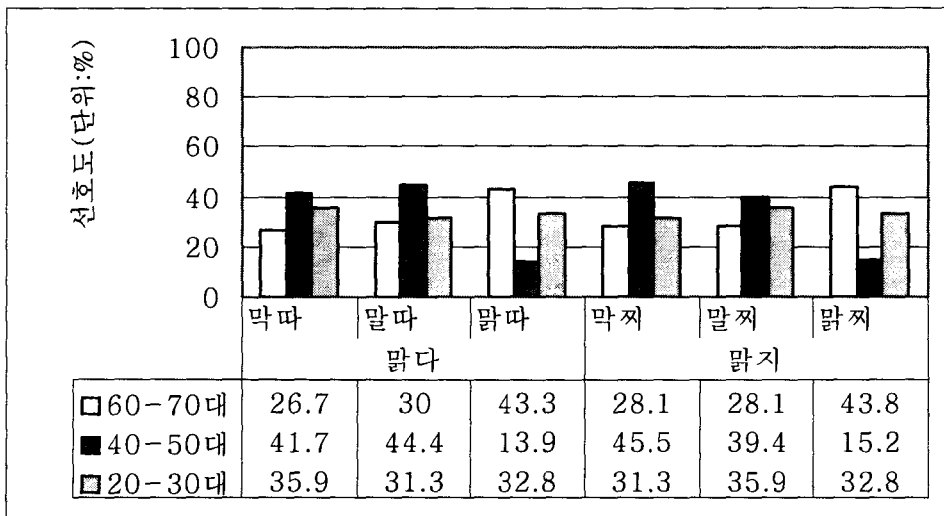
<그림 21> '흙, 흙을, 흙이'

체언들의 경우 대부분 경쟁 발음들보다 선호되는 발음이 하나씩 존재하지만

용언의 경우에는 경쟁 발음들 간의 선호도 우열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늑다, 늑지'의 경우는 [늑따, 늑찌]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지만 '맑다, 맑지',⁷⁾ '볶다, 볶지', 그리고 '읽다, 읽지'의 경우에는 연령별로, 성별로 경쟁 발음들 간의 선호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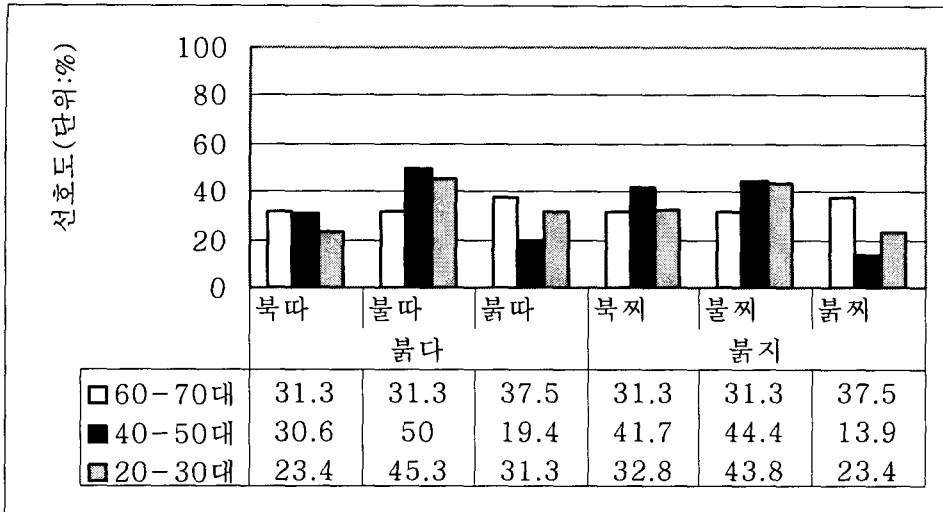


<그림 22> '늑다, 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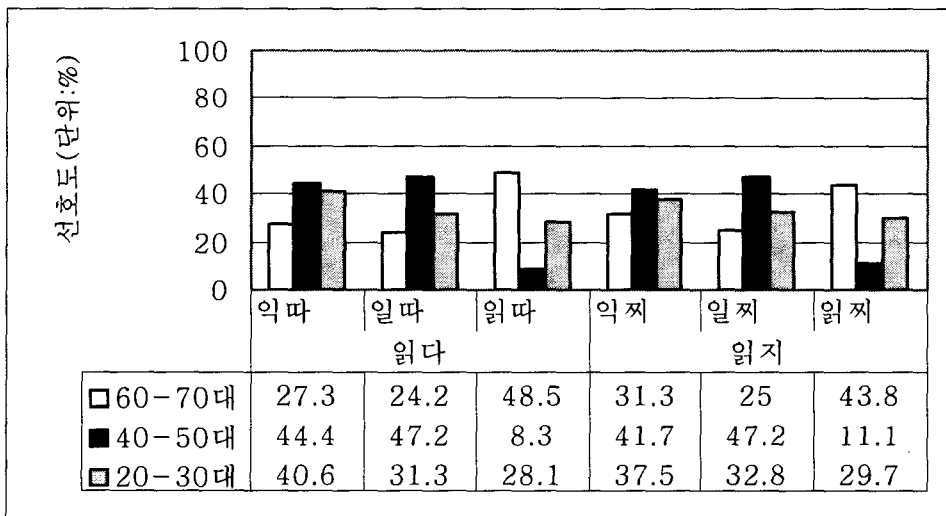


<그림 23> '맑다, 맑지'

7) 필자들의 부주의로 이 연구에서는 '늑고, 맑고, 볶고, 읽고'를 조사 항목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김선철[13]은 '맑고, 맑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조사 연구에서는 '맑고'의 경우 [맑꼬]로 실현된 비율이 96.29%, [막꼬]로 실현된 비율이 3.71%를 차지했다. '맑지'의 경우 [말찌]로 실현된 비율이 51.71%, [막찌]로 실현된 비율이 48.29%였다.



<그림 24> '불다, 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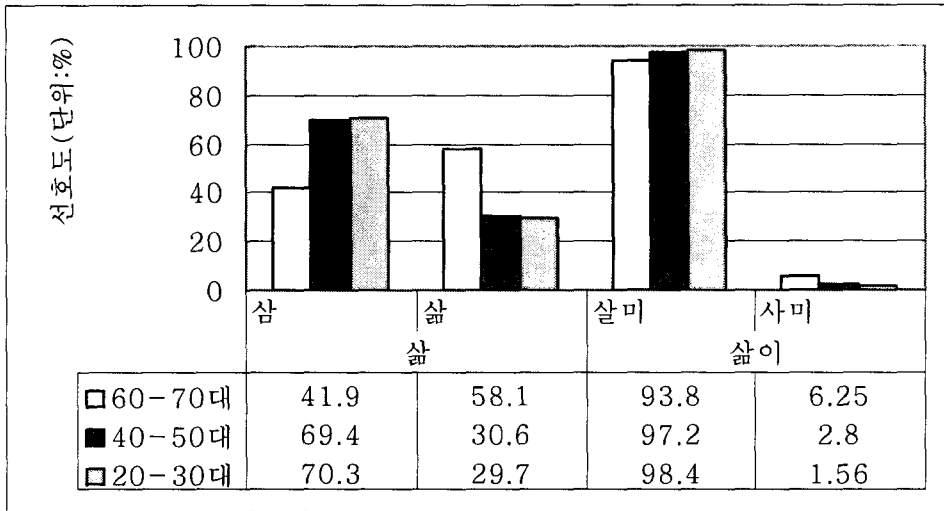


<그림 25> '읽다, 읽지'

3.11. '리'의 발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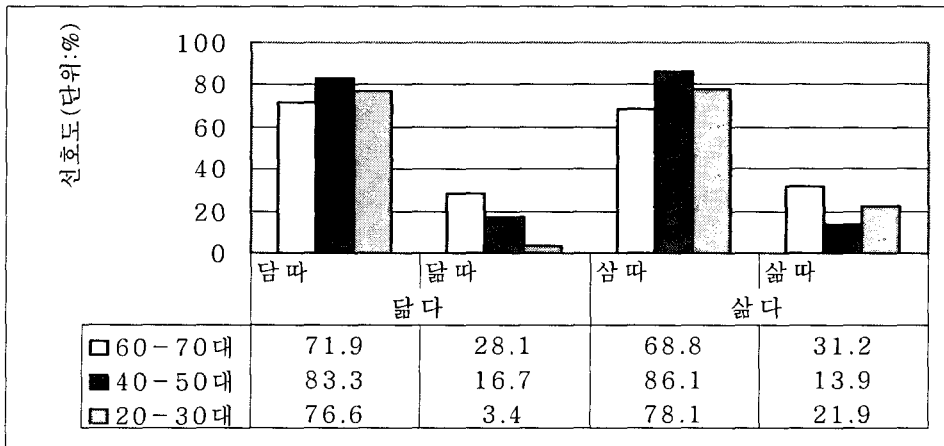
접받침 '리'를 갖고 있는 체언 가운데 가장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가 '삶'인데, '삶'이 인용형으로 발음될 때 70% 정도의 20~50대 체보자들이 [삼]을 선호했다.

반면에 60~70대 제보자들의 58%가 [샵]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점이 주목된다. '샵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살미]를 선호했으며 극소수의 제보자들만이 [사미]를 선호했다.



<그림 26> '샵, 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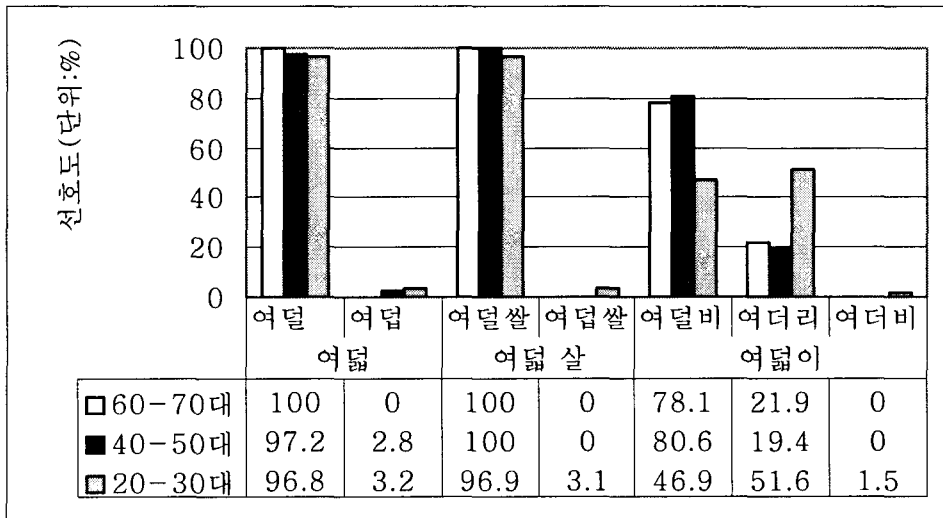
용언 '닭다'와 '샅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닭따]와 [샅따]를 선호했으나 [닭따]와 [샅따]를 선호하는 제보자들도 제법 있었다. '닭다'의 경우 [닭따]를 선호한 20~30대 제보자는 3.4%에 불과했으나 '샅다'의 경우에는 22% 정도의 20~30대 제보자들이 [샅따]를 선호했다.



<그림 27> '닭따, 샅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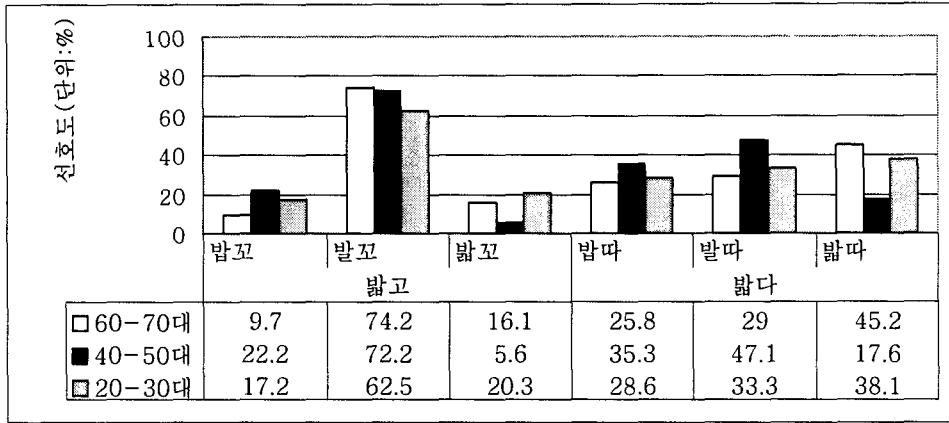
3.12. '래'의 발음

체언 가운데 접받침 '래'를 갖고 있는 단어는 '여덟' 하나밖에 없는데, '여덟'이 인용형으로 발음될 경우 거의 모든 제보자들이 [여덜]을 선호했으며 극소수의 제보자들이 [여덱]과 [여덩]을 선호했다. '여덟 살'의 경우에도 거의 모든 제보자들이 [여덜]을 선호했다. '여덟' 뒤에 조사 '이'가 이어 왔을 때 40~70대 제보자들은 80% 이상이 [여덜비]를 선호한 반면 20~30대 제보자들은 47% 정도만이 [여덜비]를 선호하고 52% 정도는 [여더리]를 선호했으며, [여더비]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제보자도 있었다.



<그림 28> '여덟, 여덟 살, 여덟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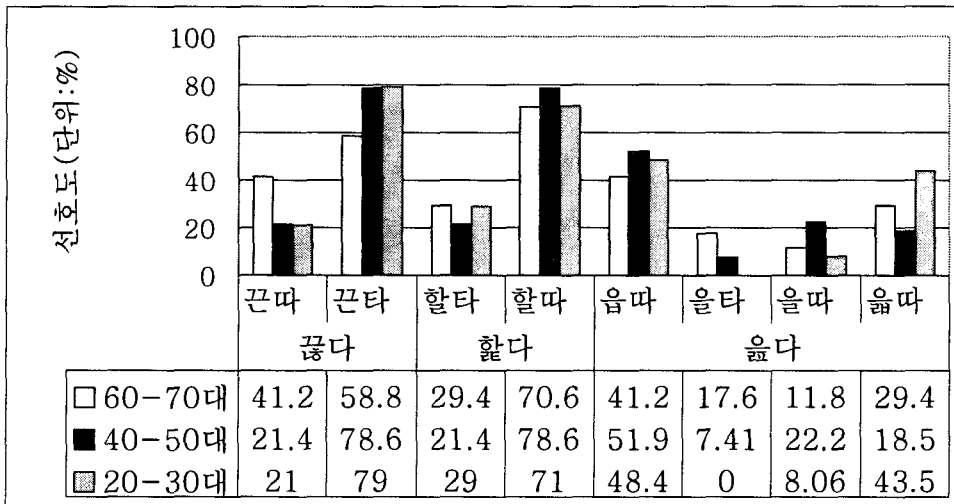
접받침 '래'를 가지고 있는 용언들 중에서는 '뵤다'만을 조사 항목으로 선정해서 조사했다. '뵤고'의 경우에는 70%에 이르는 제보자들이 [뵤꼬]를 선호하고 소수의 제보자들이 [뵤꼬]와 [뵤따]를 선호한 반면 '뵤다'의 경우에는 제보자들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뵤따], [뵤따], [뵤따]를 선호했다. 40~50대 제보자들보다 20~30대 제보자들이 훨씬 더 많이 [뵤꼬]와 [뵤따]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29> '밧고, 밧다'

3.13. 'ㄹᄇ, ㄹᄇ, ㄹᄇ'의 발음

겹받침 'ㄹᄇ, ㄹᄇ, ㄹᄇ'의 발음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꺠다, 활다, 읍다'를 조사 항목으로 선정해 조사했다. '꺠다'의 경우 75% 이상의 제보자들이 [꺠따]를 선호했는데, 60~70대 제보자들의 경우 40% 이상이 [꺠따]를 선호했다. '활다'의 경우에는 70% 이상의 제보자들이 [활따]를 선호했으며 나머지 제보자들은 [활타]를 선호했다. 마지막으로 '읍다'의 경우 50% 정도의 제보자들이 [읍따]를 선호했으며, [읍따]를 선호한 제보자들도 제법 많이 있었다. 특히 20~30대 제보자들의 경우 43.5%가 [읍따]를 선호한 점이 주목된다.



<그림 30> '꺠다, 활다, 읍다'

4. 맺음말

이 연구는 서울말에서 어간말 자음이 어떻게 실현되고 서울 토박이들이 어떤 발음을 선호하는지 많은 수의 연령별로 안배된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표준발음법의 개정에 반영하려는 의도로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는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이어 나오면 예외 없이 연음규칙이 적용되어 실현되지만 체언의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이어 나올 때 단어에 따라 실현 양상이 다르며, 같은 단어라도 뒤 이어 나오는 모음에 따라 어간말 자음의 음성적 실현이 다소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현행 표준발음법이 서울말의 어간말 자음의 발음을 대부분의 경우에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표준발음법의 규정과 배치되게 발음된 예들도 여럿 발견되었는데, 이 예외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젓에, 목젓은, 동녘에, 닭, 통닭을, 통닭이, 밟고’의 경우 표준발음법과는 달리 [목쩌세, 목쩌슨, 동녀게, 닭, 통다글, 통다기, 밟꼬]가 압도적으로 선호되었다.

둘째, ‘부엌에서, 부엌으로, 가마솥을, 형겅에, 싣고, 산기슭, 산기슭을, 산기슭이, 흙이, 흙을, 늪다, 늪지, 맑다, 맑지, 붉다, 붉지, 읽다, 밟다’ 등의 경우에는 경쟁 발음들 간의 선호도가 거의 차이나지 않았다.

표준발음법 규정에서 위배되는 발음이 서울 토박이들에 의해 압도적으로 선호되는 경우에는 교육으로 시정될 수 없으므로 표준발음법 규정에 예외 단어로써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쟁 발음들 간의 선호도 차이가 미약한 단어들은 현행 표준발음법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복수 표준발음으로서 표준발음법에 규정할 수도 있다. 표준발음법이 보다 융통성 있고 포용력 있는 규정이 되기 위해서는 복수 표준발음을 더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발음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서울말에서 어간말 자음들이 어떻게 실현되며, 서울 토박이들이 어떤 발음을 선호하는지 잘 파악할 수 있었다. 발음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도 화자들의 발음이 제법 잘 관찰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문 조사만으로는 서울 토박이들의 발음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많은 수의 서울 토박이들의 실제 발화를 녹음해서 어간말 자음의 발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다 실증적으로 밝혀지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Ⅲ(충청북도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ㄱ.
-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Ⅴ(전라북도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ㄴ.
-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Ⅶ(경상북도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Ⅳ(충청남도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ㄱ.
-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Ⅱ(강원도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ㄴ.
-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Ⅵ(전라남도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Ⅷ(경상남도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Ⅸ(제주도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ㄱ.
-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방언자료집Ⅰ(경기도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ㄴ.
- [10] 국립국어연구원,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Ⅰ,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7.
- [11] 국립국어연구원, 서울 토박이말 자료집Ⅱ,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1998.
- [12] 최혜원, 표준 발음 실태 조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2.
- [13] 김선철, 표준 발음 실태 조사Ⅱ,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3.
- [14] 이기갑, 전라남도의 언어지리(국어학총서 11), 서울: 탑출판사, 1986.
- [15] 정용수, “우리말 겹받침 발음의 실태와 그 문제점”, 국어교육, 44, pp.277-286,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3.
- [16] 이호영·김희영, “부산 방언에서의 받침규칙의 실현 양상”, 언어치료연구, 10-1, pp. 53-77, 한국언어치료학회.
- [17] Wells, J.C., “British English pronunciation preferences: A Changing Scene”, *Journal of the IPA*, 29-1, pp.33-50, 1999.
- [18] 국립국어연구원,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2002.
- [19] 유재원, 우리말 역순사전, 서울: 정음사, 1985.
- [20] 이호영, 국어 음성학, 서울: 태학사, 1996.
- [21] 남광우, 교학 고어사전, 서울: 교학사, 1997.

접수일자: 2004년 2월 16일

게재결정: 2004년 3월 15일

▶ 강은지(Eunji Kang)

주소: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소속: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

전화: 02) 880-8991

FAX: 02) 882-2451

E-mail: meimong@hanmail.net

▶ 이호영(Ho-Young Lee)

주소: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소속: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부교수

전화: 02) 880-6166

FAX: 02) 882-2451

E-mail: hylee@snu.ac.kr

▶ 김주원(Juwon Kim)

주소: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소속: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교수

전화: 02) 880-6167

FAX: 02) 882-2451

E-mail: kjwn@snu.ac.kr

부록: 설문지 항목

<p>1. 좋은 ㉠조은 ㉡조흔</p> <p>2. 밑을 ㉠미틀 ㉡미출 ㉢미슬</p> <p>3. 통닭을 ㉠통다글 ㉡통달글</p> <p>4. 햇빛을 ㉠해빼출 ㉡해빼슬</p> <p>5. 맛있는 ㉠마신는 ㉡마딘는</p> <p>6. 숲에서 ㉠수페서 ㉡수베서</p> <p>7. 가마술을 ㉠가마소틀 ㉡가마소출 ㉢가마소슬</p> <p>8. 몇몇을 ㉠면며출 ㉡면며슬</p> <p>9. 장미꽃이 ㉠장미꼬치 ㉡장미꼬시</p> <p>10. 흙이 ㉠호기 ㉡홀기 ㉢호리</p> <p>11. 늙다 ㉠늑따 ㉡늘따 ㉢늑따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p> <p>12. 밑에서 ㉠미테서 ㉡미체서 ㉢미세서</p> <p>13. 옆으로 ㉠여프로 ㉡여브로</p> <p>14. 붉다 ㉠북따 ㉡불따 ㉢북따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p> <p>15. 젓에 ㉠저제 ㉡저세</p> <p>16. 붉지 ㉠북찌 ㉡불찌 ㉢북찌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p> <p>17. 읽다 ㉠익따 ㉡일따 ㉢읽따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p> <p>18. 깨끗이 ㉠깨끄시 ㉡깨끄치</p> <p>19. 읽지 ㉠익찌 ㉡일찌 ㉢읽찌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p> <p>20. 맑다 ㉠막따 ㉡말따 ㉢맑따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p> <p>21. 통닭이 ㉠통다기 ㉡통달기</p> <p>22. 여덟 ㉠여덜 ㉡여덫</p> <p>23. 낫을 ㉠닉썰 ㉡니글</p> <p>24. 밟다 ㉠밥따 ㉡발따 ㉢밟따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p> <p>25. 짠 값에 ㉠싼가베 ㉡싼갑세</p> <p>26. 뜻있는 ㉠뜨신는 ㉡뜨딘는</p> <p>27. 산기슭을 ㉠산끼스글 ㉡산끼슬글</p>	<p>28. 멋있는 ㉠머신는 ㉡머딘는</p> <p>29. 깎듯이 ㉠깎뜨시 ㉡깎뜨치</p> <p>30. 꽃꽂이 ㉠꼬꼬시 ㉡꼬꼬치</p> <p>31. 맑지 ㉠막찌 ㉡말찌 ㉢맑찌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p> <p>32. 꽃꽂이 ㉠꾸꾸시 ㉡꾸꾸치</p> <p>33. 길 옆으로 ㉠길려프로 ㉡길려브로</p> <p>34. 묏을 ㉠목썰 ㉡모글</p> <p>35. 삼 ㉠삼 ㉡삼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p> <p>36. 걸을 ㉠거틀 ㉡거출 ㉢거슬</p> <p>37. 묏이 ㉠목씨 ㉡모기</p> <p>38. 밤낮으로 ㉠밤나즈로 ㉡밤나스로</p> <p>39. 빛은 ㉠비즌 ㉡비슨 ㉢비즌</p> <p>40. 젖은 ㉠저즌 ㉡저슨</p> <p>41. 목젓에 ㉠목져제 ㉡목져세 ㉢목져데</p> <p>42. 몇몇이 ㉠면며치 ㉡면며시</p> <p>43. 덧을 ㉠더출 ㉡더슬</p> <p>44. 숲으로 ㉠수프로 ㉡수브로</p> <p>45. 덧이 ㉠더치 ㉡더시</p> <p>46. 장미꽃을 ㉠장미꼬출 ㉡장미꼬슬</p> <p>47. 깃잎에서 ㉠깟니페서 ㉡깟니베서</p> <p>48. 낳은 ㉠나은 ㉡나흔</p> <p>49. 햇빛이 ㉠해빼치 ㉡해빼시</p> <p>50. 솟을 ㉠수출 ㉡수슬</p> <p>51. 목젓은 ㉠목져즌 ㉡목져슨 ㉢목져든</p> <p>52. 부엌에서 ㉠부어케서 ㉡부어게서</p> <p>53. 동녘에 ㉠동녀케 ㉡동녀계</p> <p>54. 가마술에 ㉠가마소테 ㉡가마소채 ㉢가마소세 ㉣가마소테</p> <p>55. 밟고 ㉠밥꼬 ㉡발꼬 ㉢밟꼬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p> <p>56. 좋은 ㉠조은 ㉡조흔</p> <p>57. 산기슭이 ㉠산끼스기 ㉡산끼슬기 ㉢산끼스리</p>
--	--

58. 길에서 ㉠거테서 ㉡거체서 ㉢거세서

59. 낮에 ㉠나제 ㉡나세

60. 밭에서 ㉠바테서 ㉡바체서 ㉢바세서

61. 길 옆에서 ㉠길러페서 ㉡길러베서

62. 깻잎으로 ㉠깻니프로 ㉡깻니브로

63. 풀숲에서 ㉠풀쭈페서 ㉡풀쭈베서

64. 무릎이 ㉠무르피 ㉡무르비

65. 흙 ㉠혹 ㉡홀 ㉢흙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

66. 늪지 ㉠늪찌 ㉡늪찌 ㉢늪찌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

67. 떡하고 ㉠떠카고 ㉡떠가고

68. 잎을 ㉠이플 ㉡이블

69. 흙을 ㉠호글 ㉡홀글

70. 형겅을 ㉠형거플 ㉡형거블 ㉢형거슬

71. 써 값을 ㉠써가블 ㉡써갑쓸

72. 써이 노랗다 ㉠써기 ㉡써씨

73. TV는 사랑을 신고

㉠시꼬 ㉡실꼬 ㉢시코 ㉣실코

74. 겁이 많다 ㉠거비 ㉡겁씨

75. 여덟 살 ㉠여덜쌀 ㉡여덱쌀

76. 빨리 씻어라 ㉠씨서라 ㉡씨꺼라 ㉢씨처리

77. 끊다 ㉠끈따 ㉡끈타

78. 풀숲으로 ㉠풀쭈프로 ㉡풀쭈브로

79. 빛에 ㉠비제 ㉡비세

80. 삶이 외롭다 ㉠살미 ㉡사미

81. 형겅에 ㉠형거페 ㉡형거베 ㉢형거세

82. 닭다 ㉠담따 ㉡닭따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

83. 삶다 ㉠삼따 ㉡삶따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

84. 핥다 ㉠할타 ㉡할따

85. 밭을 ㉠바틀 ㉡바출 ㉢바슬

86. 읊다 ㉠읍따 ㉡을타 ㉢을따 ㉣읍따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

87. 낱다 ㉠나타 ㉡나따

88. 솟이 ㉠수치 ㉡수시

89. 녀이 ㉠녁씨 ㉡녀기

90. 여덟이 ㉠여덜비 ㉡여더리 ㉢여더비

91. 부엌으로 ㉠부어크로 ㉡부어그로

92. 산기슭 ㉠산끼슬 ㉡산끼슬 ㉢산끼슬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

93. 닭 ㉠닥 ㉡달 ㉢닭

(리을 동시에 발음하면 ㉢에 표시해 주세요)